

십일면관음상

십일면관음보살은 11 개의 얼굴을 가진 관음보살로 이 불상은 불교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연꽃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중심이 되는 1 개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있는 작은 10 개의 얼굴을 합쳐 총 11 개인 얼굴은, 십일면관음이 귀를 기울이고 중생의 모습을 관찰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십일면관음상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은 바닥을 가리키며 소원의 성취를 의미하는 인상(印相, 불상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손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연꽃이 담긴 꽃병을 들고 있습니다. 불상의 높이는 303cm 로, 과거 이곳에 있었던 불상을 대체하기 위해 1242 년에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다소 근엄한 표정과 고풍적인 모습은 당시 제작된 조각상 중에서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며, 이는 과거 오래된 불상의 모습을 그대로 남긴 것일 지도 모릅니다. 불상은 요세기즈쿠리 즉, 조각상 본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부분을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